

일본 수출규제 동향(12.23~12.26)

1. 한일 정상회담 관련

□ [회담 결과]1)

- 한일 양국 정상은 12월 24일 정상회담을 개최, △ 북한 비핵화 △ 강제징용 배상판결 △ 일본 수출규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
- [북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
- *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3국은 북·미 프로세스의 진전을 지지하며, 추가 도발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일치
- [강제징용 배상판결]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났으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는 방안에 의견을 일치2)
- *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설명3)
- * 또한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남.4)
- [일본 수출규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답변(SBS 보도)5)
- [기타]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청와대 측에서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6)

1) 「日韓、元徴用工で協議継続、韓国、輸出管理撤回を要求、1年3ヵ月ぶり首脳会談。」 『日本経済新聞』 (2019. 12. 25), 「日韓「対話で解決」一致 元徴用工問題は平行線 1年3ヵ月ぶり首脳会談」 『朝日新聞』 (2019. 12. 25), 「日韓首脳会談：「元徴用工」対話を継続 日韓首脳が一致 1年3ヵ月ぶり会談」 『毎日新聞』 (2019. 12. 25) 등

2) 각주 1의 아사히(朝日) 신문

3) 「「『徴用』めぐる問題は韓国側が解決策を」安倍首相会見」 『NHK NEWS WEB』 (2019. 12. 24).

4) 「日韓、互いの主張確認、元徴用工巡り協議は継続方針、根本解決への道遠く。」 『日本経済新聞』 (2019. 12. 25).

5) 「한일 정상, '대화로 해결' 공감... 여러 고비 아직 남았다」 『SBS NEWS』 (2019. 12. 25).

< 한일 정상회담 결과 >

양측 주장	
북한 문제	- 한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일 공통)
강제징용 문제	- 외교당국자 등을 통해 대화로 해결 (한일 공통) - 단, 일본은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수출규제	- 7월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한국) - 한일 수출 당국자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일본)

□ [일본 정부 동향]7)

- 스가(菅)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이 직접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인식을 표명
- 또한 앞으로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협의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에는 의견을 일치하였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에 관해 한일 양국의 시각차가 커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8)

6) 각주 5의 SBS 보도.

7) 「日韓首脳会談「両首脳が直接向き合い 有意義」菅官房長官」 『NHK NEWS WEB』 (2019. 12. 25).

8) 각주 1의 언론 종합